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 렘 콜하스와 톰 위스콤 건축에 나타난 객체지향 존재론의 재해석 비교에 관한 연구

- 그레이엄 하먼의 건축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Reinterpretation of Object-Oriented Ontology in Rem Koolhaas and Tom Wiscombe Architecture

- Based on Graham Harman's theory of architecture -

○이 혜 지\*      임 종 업\*\*  
Lee, Hye-Ji      Lim, Jong-Yup

###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object-oriented ontological concepts shown in Rem Koolhaas and Tom Wiscombe architecture. It was judged that the theory of spatial composition through object-oriented ontological thinking was meaningful according to the change in spatial composition method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modern architecture. Therefore, an analysis framework was prepared based on the concepts of two architects, each represented by Zero-Function Ontology and Flat Ontology, as a broad framework for Object-Oriented Ontology. It was found that the autonomous use of complex programs, the allowance of variability in morphological decisions, and the denial of fixed functions and forms of architectural elements were common in the works of the two architects, and the resulting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also existed.

키워드 : 객체지향 존재론, 렘 콜하스, 톰 위스콤, 제로-기능 존재론, 평평한 존재론, 그레이엄 하먼

Keywords : Object-Oriented Ontology, Rem Koolhaas, Tom Wiscombe, Zero-Function Ontology, Flat Ontology, Graham Harma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는 건축에서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건축은 형태와 공간을 연결해야 하는 결정방식에서, 더 이상 기능에 형태를 대입시키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근대건축에서는 순수 기능과 그에 따른 형태를 강하게 요구했던 반면에, 현대건축은 복합적인 기능에 적합한 고정된 형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은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적 사고가 현대건축의 최적화된 형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 공간 구성방법론에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본 연구는 객체지향 존재론의 개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건축가 렘 콜하스(Rem Koolhaas)와 톰 위스콤(Tom Wiscombe)을 선정하고, 두 건축가의 작품을 분석하여, 현대건축의 공간구성방식에서 존재론적 재해석에 관한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레이엄 하먼의 저서인 ‘건축과 객체’를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건축 이론으로서 객체지향 존재론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렘 콜하스의 객체지향 존재론적 성

격을 띤 건축 사고를 제로-기능 존재론으로 정의하고, 톰 위스콤의 건축 사고인 평평한 존재론과 함께 개념과 공간적용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렘 콜하스와 톰 위스콤의 건축작품에 나타나는 객체지향 존재론의 개념을 비교하고 5장에서는 그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 2. 객체지향 존재론과 건축공간론

#### 2.1 객체지향 존재론의 개념

객체지향 존재론은 상관 주의에 반대하여 주체 개념을 폐기하고, 인간 역시 객체 가운데 하나로 간주한다. 객체지향 존재론에서 중요한 것은 객체와 그 성질들 사이의 긴장으로 ‘물려서 있음’과 연동되는데, 이는 한 객체가 다른 객체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도 물려서 있고, 스스로를 현실화하는 것에 관해서도 물려서 있음을 뜻한다.<sup>1)</sup> 즉 객체는 자신이 맺은 관계와 성질들로부터 독립적임을 뜻한다. 따라서 객체지향 존재론에서 객체는 인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단순한 외형이나 기능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자질이 있다고 여긴다. 즉, 객체에는 외형이나 기능과는 구별되는 본질이 내재하여 있다는 것이다.<sup>2)</sup>

1) 하승우. (2021). 객체지향 존재론: 빚빚한 존재론인가 대상지향 존재론인가. 문과과학 2021년 가을호(통권 제107호).

2) 나성화, 박찬일. (2022). 톰 위스콤 건축 사고로서의 ‘평평한 존재론’의 개념과 건축적 구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 인하대 대학원 석사과정

\*\*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 Dott.Arch

## 2.2 객체지향 존재론과 건축공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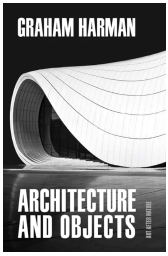


그림 1 Graham Harman, Architecture and objects

데이비드 루이(David Ruy)에 따르면, 건축은 건축적 객체에 관한 담론에서 건축적 장(field)에 관한 담론을 점점 더 빨리 이행했으며, 건축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환경의 잠정적인 성분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즉 건축을 관계주의로 환원시켰다는 주장이자, 실재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게 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레이엄 하먼은 건축과 객체라는 저서를 통해 객체지향 존재론이 건축공간론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 3. 객체지향 존재론의 공간적용 방법론

### 3.1 제로-기능 존재론

#### (1) 중첩된 프로그래밍

##### ① 자율적 실재

사변적 실재론은 상관 주의에 반대한다는 큰 틀 아래, 객체지향 존재론이 구별되는 특징은 칸트의 근본 오류를 사유/세계, 즉 실재를 분할하는 단 두 개의 극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사유/세계 쌍이 수소/산소 결합과 그 종류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물 또한 자율적인 실재로, 자체 요소들의 독립적인 본성을 은폐하는 혼합물이 아닌 독자적인 특성을 갖춘 새로운 실재에 해당한다.

##### ② 복합체

복합체는 앞서 언급했던 물이라는 예시를 통해 설명된다. 물은 수소와 산소 사이의 내부 관계로 환원될 수 없고 물에 관한 어떤 이해나 물을 사용하는 행위, 심지어 물과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호작용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모든 존재자는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된 복합 객체이며 자신의 성질이나 외부효과들로 환원될 수 없다.

##### (2) 가변적인 윤곽

하먼은 객체를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인지되는 감각 객체와 경험 밖에 있는 실제 객체로 구분하고, 객체의 성질 또한 감각 성질과 실제 성질로 구분한다. 객체의 네 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실제적 객체-감각적 성질(수직적 긴장), 실제적 객체-실재적 성질(인과적 긴장), 감각적 객체-감각적 성질(수평적 긴장) 그리고 감각적 객체-실재적 성질(형식적 긴장)이다. 하먼은 이들 긴장을 각각 ‘공간’, ‘본질’, ‘시간’, ‘형상’이라고 정의한다.

##### (3) 형태와 의미의 상호작용

#### ① 직서주의의 문제와 현전과 부재

하먼은 직서주의란 객체를 성질들의 다발로 규정하는 과정으로써, 객체의 실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개념의 연장 선상에서 형태와 의미의 개념이 설명된다. 형태란 보이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의미란 보이는 것 이상의 보다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본질을 뜻한

다. 직서주의의 근본 문제는 철학적 텍스트를 직서적으로 건축에 적용하면서 건축의 실재를 상실하는 것이다.

### 3.2 평평한 존재론

#### (1) 탈 위계적인 부분과 전체 관계

##### ① 건물-대지 관계 재고

톰 위스콥은 평평한 존재론에 반대되는 수직적 분류체계를 문제로 인식했고, 그 결과 건물-대지의 일체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톰 위스콥은 건물-대지 관계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인식했고, 건축과 대지를 단절시켜 긴장 관계에 놓인 객체로 구상했다.

##### ② 객체-안에-객체 중첩 방식

건축을 환경적 맥락에 의해 파악되기보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율적인 맥락을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간 프로그램 요소를 중층 구조를 가지도록 배치하는 객체-안에-객체 중첩 방식을 사용한다. 내부에 있지만, 외부에 있는 듯한 경계가 모호하고 중첩된 공간은 건축 그 자체로부터 공간적 성질을 획득하게 된다.

#### (2) 새로운 형태적 어휘

##### ①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형태적 외곽

건축 요소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건축에 반대하여 터미널(Terminal) 개념을 구상했다. 터미널은 건축적 객체의 내면성을 강조하며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에게 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내부에 도착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 ② 새로운 형태적 어휘로서의 크리스탈, 잭, 지구라트

새로운 형태적 어휘로서 크리스탈(Crystals), 잭(Jacks)<sup>3)</sup>, 지구라트(Ziggurats), 끝이 뾰족한 윤곽을 가진 형태, 4차원 초입방체(Tesseract) 등의 건축적 객체로 구체화한다.

#### (3) 텍토닉적 허구

##### ① 문신/메타심(Meta-seam)

문신은 건축 외피에 새겨짐으로써 외피의 분절을 구체화한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 외피의 구축 방식에서 벗어나 외피 안의 형태를 이탈하고 숨겨진 형태에 대한 유추를 통해 자율성을 가지는 건축적 객체가 된다. 메타심은 외피 패널의 과장되게 형성된 연결 부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매스와 같은 단일 요소를 여러 덩어리로 분할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인간적 척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 ② 슈퍼 컴포넌트(Super-component)

인간적 규모를 재현하기 위한 작은 패널과 재료를 사용하는 전통적 방식에 더이상 제약받지 않고, 테서랙트 같은 기하학적 구조에 맞춰 특정 방향으로 나뉘지며 맞물리는 슈퍼 컴포넌트 구축 방식을 사용한다. 이로써 기존의 건축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텍토닉적 방식을 제안한다.

3) 잭은 네 갈래의 장난감 같은 객체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회전 하더라도 수직적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수직 축에서 벗어나다.

#### 4. 객체지향적 개념에서 램 콜하스와 톰 위스콥의 비교

##### 4.1 램 콜하스의 건축공간 분석

###### (1) 카디프 오페라 하우스(Cardiff Opera House)

###### ① 중첩된 프로그래밍

카디프 오페라 하우스는 하나의 상자와 구부러진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자 매스는 기존 오페라 하우스에서 고수되어 왔던 작품의 제작과 공연의 완벽한 분리를 거부하고, 두 프로그램이 중첩되어 있다. 구부러진 면은 관람객의 주동선이 점유하는 공간으로써 포이어와 객석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프로그램 역시 중첩되어 있다. 공연 및 공연 지원 시선 간의 중첩과 객석과 포이어의 중첩, 그리고 이 두 공간의 이접적인 충돌을 통해 램 콜하스는 새로운 사건의 공간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2 Cardiff Opera House, 1994

###### (2) 테이트 모던 미술관(Tate Modern Museum)

###### ① 가변적인 윤곽

기존 화력발전소의 터빈 홀의 활용에 있어 램 콜하스는 열리고 닫힌 공간들로 복합 구성을 통해 신축성 있는 내부공간을 계획했다. 전체 공간은 기능 박스와 그 사이의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기능 박스는 다양한 조건과 형태, 크기를 가진 시각적 공간으로, 기능 박스 사이의 열린 공간들은 로비, 기획전시, 공연, 강연 등 역동적인 공공 공간으로써 유연성과 다양성을 나타내는 암시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 ② 형태와 내용의 상호작용

킵니스는 램 콜하스가 건축적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기보다 가능한 최소의 시간에 많은 방문객을 순환시키는 하부구조적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뿐이라고 비판하며, 이 프로젝트가 특별히 미술관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제로-기능 존재론 측면에서 본다면, 기능에 따라 형태가 정해지는 전통적인 결정방식이 아닌 기능을 비결정 화합으로써 최대한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건축물의 기능을 탈직서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표 2 램 콜하스와 톰 위스콥 건축에 나타난 객체지향 존재론적 특성

		객체지향 존재론		
		객체의 능동적인 역할수행,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미학, 탈관계주의적 존재론		
건축가		램 콜하스	톰 위스콥	
개념		제로-기능 존재론	평평한 존재론	
공간적용 방법론	중첩된 프로그래밍	복합체(다원주의적 혼성체)	탈 위계적인 부분과 전체 관계	
		자율적 실재	건물-대지 관계 재고 '객체-안에-객체' 중첩 방식	
	가변적인 윤곽	수직적 긴장	새로운 형태적 어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형태적 외곽
		수평적 긴장		새로운 형태적 어휘로서의 크리스털, 잭, 지구라트
		형상적 긴장		문신-메타심
	형태와 내용의 상호작용	인과적 긴장	텍토닉적 허구	슈퍼 컴포넌트
현전과 부재				
		직서주의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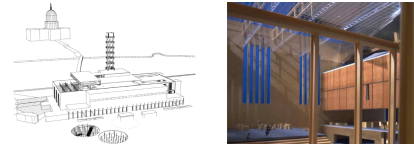


그림 3 Tate Modern Museum, 1994

##### 4.2 톰 위스콥의 건축공간 분석

###### (1) 타이중 문화센터

###### ① 객체-안에-객체 중첩 방식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술관, 도서관 등 각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객체로 간주하여 각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탈 위계적인 부분과 전체 관계를 설정한다. 동선 객체는 건물 전체에 프로그램과 공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은 선택적인 동선을 통해 건물을 이동하고 독특한 공간 경험을 통해 건물에 대한 시각적인 매력을 더한다. 또한, 이 객체는 객체-안에-객체 방식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전체로 합쳐지지 않는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며 전체와 긴장 관계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 (2) 국립현대예술센터

###### ①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형태적 외곽

객체 형상을 외부에서 밀어 넣는 방식은 지면에 영향을 미치며 건물 내에 복잡한 전이 공간을 만든다. 전이 공간은 건물의 외관과 내부 사이에 위치하며, 예기치 못한 공간을 생성한다. 방문객은 이러한 공간을 이동하면서 다양한 내부공간을 체험하게 되고 내부공간의 경계에 대한 모호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전이 공간은 방문객이 내부공간을 즉시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든다. 즉 내부성이 지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② 문신/메타심(Meta-seam)

문신은 건물 표면을 디자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톰 위스콥은 문신을 통해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도전한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통해 외피 실루엣에서 바다, 벽, 천장 구분의 모호함을 시도하며, 혁신적인 텍토닉적 구축 방식을 제안한다. 문신의 자유로운 형태는 복합적인 물성을 나타내며 건물의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인간적 척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다이어그램						
작품분석	카디프 오페라 하우스	테이트 모던 미술관	타이중 문화센터	국립현대미술센터		
작품분석	중첩된 프로그램	가변적인 윤곽	형태와 내용의 상호작용	탈 위계적인 부분과 전체 관계	새로운 형태적 어휘	텍토닉적 허구
	- 작품의 제작 공간과 공연 공간의 중첩 - 포이어와 객석의 중첩 - 공연 공간과 공연 지원시설 간의 중첩과 객석과 포이어의 중첩의 이접적인 층들을 통해 새로운 사건의 공간을 전제	- 미결정 박스 형태의 열린 매스는 신축성 있는 내부 공간 계획이 가능 - 지각적(수평) 공간과 암시적(수직) 공간의 교차	- 지시된 기능을 비결정화 함으로써 최대한의 가변적 가능성 확보	- 두 개의 독립된 객체(미술관, 도서관)는 각각의 자율성 가짐 - 선택적 동선 및 프로그램의 복합적 연계	- 외피와 내부공간 사이의 전이 공간을 통해 새로운 형태 추구 - 내부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 바닥, 벽, 천장 구분의 모호함 시도 - 소재가 가지고 있는 물성적 특성의 혼합
차이점	- 가변적 모듈의 변화로 내부에서 신축성 있는 공간 계획 - 미니멀한 박스 형태의 매스 -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 및 형태 결정방식의 부정		- 각각의 프로그램은 자율성을 가지며 중첩됨 - 파라메트릭적 비선형 - 외피 실루엣에서 바닥, 벽, 기둥의 경계가 모호하고 자유로움			
공통점	- 복합적 프로그램 및 공간의 자율적 활용 - 형태적 결정에서 자율성의 허용 - 고정된 기능 및 형식의 부정을 통한 건축 요소의 부정					

##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 건축의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 방식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객체지향 존재론적 사고를 통한 공간구성방법론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객체지향 존재론의 특성을 가진 두 건축가, 렘 콜하스와 톰 위스콥 건축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공통점으로 첫째, 복합적 프로그램의 자율적 활용이다. 렘 콜하스는 프로그램의 중첩을 통해 프로그램의 복합적이면서도 자율적인 활동을 계획했다면, 톰 위스콥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자율성을 확보한다. 둘째, 형태적 결정에서 자율성의 허용이다. 렘 콜하스는 열리고 닫힌 공간들의 복합 구성을 통해 신축성 있는 공간 계획으로 가변적인 윤곽을 계획했다면, 톰 위스콥은 파라메트릭적 비선형형태와 전이 공간을 통해 경계의 모호함을 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정된 기능 및 형식의 부정을 통한 건축 요소의 부정이다. 렘 콜하스는 기능을 비결정화 함으로써 최대한의 가능성을 추구했다면, 톰 위스콥은 외피 실루엣에서 바닥, 벽, 기둥 구분의 모호함을 시도하여 혁신적인 텍토닉적 구축 방식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1. 나성화, 박찬일. 톰 위스콥 건축 사고로서의 ‘평평한 존재론’의 개념과 건축적 구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2022).
2. 조한, 김남현. 렘 콜하스 건축에 내재한 들뢰즈의 생성적 사유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2).
3. 김모두. 렘 콜하스 건축의 프로그램 불확정성 표현방법 고찰.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4).
4. 김종진. 테이트 모던 공모전 최종한들에 나타난 장소 및 건축 재조직 설계방법 비교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2020).
5. 신윤정. 테이트 모던 터빈홀의 ‘발견된 장대함’과 장소특정성의 확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6. 하승우. 객체지향 존재론: 밋밋한 존재론인가 대상지향 존재론인가. 문과과학 2021년 가을호(통권 제107호). (2021).
7. Graham Harman. 건축과 객체. (2023).